

주말은 보성서...오감만족 국가농어업유산축제 연다

전통뽕배 타기·갯벌 풋살 경기
찾잎 찾기 유산길 걷기 등 풍성
별교갯벌 레저뽕배대회도 열려

보성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2호 '보성 뽕배어업'과 제11호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국가농어업유산축제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한국차문화공원과 장양어촌체험마을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차밭과 바다를 모두 아우르는 보성의 매력을 알리고 더 나아가 보성군이 보유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온 몸으로 즐길 수 있도록 가족 중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보내는 건강한 축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현지에서 보고 느끼며 배우는 축제, 다채로운 체

험과 경품이 있는 풍족한 축제라는 기쁨을 내세우며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주요 프로그램인 '황금 찾아 잎 찾기 유산길 걷기 챌린지'는 행사장인 한국차문화공원 초록 차밭을 걸으며 보성 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워크온'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7일과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3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매일 선착순으로 500명씩 사전 예약이 진행된다.

챌린지 인증을 완료한 체험객은 유산길을 걸으며 찾은 보물을 현물(매일매일 금 1돈 찾아 잎 5개, 고급차&1인 다기 30세트, 명품 보성쌀 300개)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모든 완주자는 5000원권 지역 상품권 또는 현장 쿠폰이 지급된다. 단 참여 신청자가 많을 시 체험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농업유산 축제장에서는 △차 만들기 △전통 다례 체험 △한종일 차문화 체험 △고려단차 만들기 △찾잎따서 한줌차 만들기 △녹차 베게 만들기 △녹차 스카프 만들기 △오후의 티(Tea) 파티 △찾아가는 전통 씨름 △한복 체험 등이 진행된다. 어업유산 축제장에서는 △갯벌 생물 잡기 △전통 뽕배타기 △뽕배 무드 만들기 △머드 페이스페인팅 등이 준비돼 있다.

또한 각종 품평회와 경연대회, 학술세미나, 전시,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7일 장양어촌체험마을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보성별교갯벌을 달리는 제9회 별교갯벌 레저뽕배대회가 열린다.

행사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

가부 전통 뽕배 경기 △10종 레저뽕배 경기 △어업유산 전시·홍보관 △한국의 갯벌 VR 체험 △갯벌 생물 잡기 및 무료 시식 △어린이 무료 볼 풀장 △페이스페인팅 등 29개 행사를 추진한다.

보성의 대표 특산물인 별교꼬막을 캐기 위한 이동수단인 '뽕배'를 타고 속도를 겨루는 이색적인 경기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부대행사로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가 열리며 고운 필을 자랑하는 갯벌 속에서 이뤄지는 갯벌 풋살 대회, 보성별교갯벌에 서식하는 쟁뚱어와 칠게를 맛보는 무료 시식 부스 등을 운영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농어업유산축제 누리집(bsworldteaexp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민섭 기자



구례지역자활센터에 쌀 기탁 NH농협은행 전남본부 농협구례군지부

농협구례군지부(지부장 이성재)는 지난 2일, 구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양철승)에 구례 쌀 10kg 400포·100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눔' 기탁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의 후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쌀 기탁식 후, 쌀 소비촉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실시했다.

이성재 지부장은 "지속적인 쌀 소비촉진 MOU 체결을 통해 관내 각 기관들과 함께 전직원 아침밥 먹기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순천시, 콘텐츠 페스티벌 연계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 개최

순천시가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부제:올텐가! (All Content Garden))'과 연계한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를 시작한다.

올텐가 행사의 첫 포문을 여는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는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예비 애니메이터로서 성장의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애니메이션을 창작하는 전국 고등·대학생 및 17~25세(1999년~2007년생) 연령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다. 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출품부문을 △단편 △쇼츠 두 가지로 나눈과 동시에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출품 부담을 최소화했다.

출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올텐가 홈페이지(https://sc-cf.com/) 또는 이메일(sc.animation2024@gmail.com)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어워즈를 위해 시는 40작품(단편 20, 쇼츠 20)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총 361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입상작을 제외한 수상작들은 올텐가 기간 동안 오천그린광장 야외 상영회를 통해 대중 앞에 상영된다.

수상작 발표는 오는 10월 16일, 올텐가 공식 누리집과 순천시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어워즈를 통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 문화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첫 신호탄과도 같은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부제:올텐가!)'은 올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정원과 원도심 일원에서 개막식, 유명 인사 토크콘서트, 비즈니스 마켓, IP 활용 전시·팝업, 야외 상영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21일 '마법사의 선물 상자' 공연 광양금호도서관

광양시는 오는 21일 광양금호도서관에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술 복합 마술 공연 '마법사의 선물 상자'가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광양금호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온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마술 공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객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볼거리를 준비했다.

'마법사의 선물 상자'는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술과 융합된 체험 학습적 성격을 띤 마술 공연이다. 서울랜드 겨울 시즌 정기 공연 단체이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지원 단체인 극단 '퍼플'(장덕범 단장)이 이번 공연을 맡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yang.go.kr)을 참고하거나 금호도서관(061-797-3846)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노인돌봄 안전확인 종사자 대상 고흥군, 특별수당 지급

고흥군은 최근 폭염 속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킨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 프로그램,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흥군은 수행기관 2곳에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7명의 종사자가 2881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이번 특별수당은 고흥군 노인복지관과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종사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담 사회복지사 14명과 생활지원사 193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207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고흥군은 향후 극단적인 날씨 상황에 맞춰 한파에도 동일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광양시가 11월 29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210명을 대상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체험중인 참여자들.

광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생교육 진행

광양시(노인장애인과)는 11월 29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210명을 대상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 함께 걸어요'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기 계발 욕구와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광양시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 중복지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 관계망 구축, 자기 계발과 학습 욕구 충족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했다.

프로그램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는 두부&인절미 체험, 2회차는 목재

체험, 3회차는 다육아트 체험, 4회차는 천연염색 체험, 5회차는 제과제빵 체험, 6회차는 라탄 공예 체험, 7회차는 캔들 공예 체험이 예정돼 있다.

1회차(두부&인절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어린 시절 큰 가마솥 아래 장작불을 지펴가면서 두부를 만들었던 기억, 절구와 떡메로 인절미를 만들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시, 안전한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의료대응·교통편의·관광대책 등

순천시가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의료대응, 재난안전, 민생보호, 교통편의, 관광대책 등 8개 분야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061-749-5459)을 운영하며, 비상근무체계(505명)를 유지한다.

특히 재유행이 우려되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로 상황실을 연휴 기간동안 운영한다.

명절 전후 물가안정과 서민 생활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축산물 성수품목 16종의 명절 물가를 중점 관리하고, 수산물 소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훈훈한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기를 나누는 보살핌을 실천하고, 추석 당일에는 시립공원 묘지와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 주변 교통 지도와 함께 공원묘지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4일과 16일에는 생활쓰레기를 정상 수거하며, 연휴 기간에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 불편 해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순천은 명절에도 가볼 곳이 많다.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은 연휴 간 방문객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낙안읍성, 순천만습지, 드라마촬영장과 함께 16일부터 18일까지 기간 동안 한복착용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한 주요 관광지는 연휴 간 정상 운영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